

안녕하십니까. 전 퀸즈 (Queens)  
우드사이드 (Woodside) 에서 온 시 의원 에릭  
지오이아 (Eric Gioia) 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뉴욕 시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 시민이 자신들의 의견이 뉴욕  
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기에 이번에 공익옹호  
관 (Public Advocate) 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시 전체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 내 그 누구도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돈은 더 내지만 서비스는 갈수록  
엉망이라고 느끼는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까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거나 뉴욕 시에 연줄이 없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 정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근로자나 중산층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차기 공익옹호 관에게서 필요한 것은 뉴욕  
중산층이 당면한 현실을 이해하며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을 하기 위해  
공익옹호 관에 출마하였습니다. 전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8년간 시 의회에서 해  
온 것들이며 앞으로 공익옹호 관으로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루스벨트 대로 (Roosevelt Avenue)에서  
100년이 넘게 꽃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 PS 11  
공립학교와 125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성  
프란시스 프렙 (St. Francis Prep)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법대에 들어가기 전 뉴욕 대 (NYU)  
학비를 내기 위해 수위와 안내인으로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 근무했습니다.

2001년에 저는 저희 이웃의 아이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의회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대신에  
누군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뉴욕 시민은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 학교 비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러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지원할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의 지출에 대해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시 예산 확충에 협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전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으로 출두시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들에게 집세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제가 1 주일 동안 식품권을 받아서 생활하고 사람들이 코스트코 (Costco)에서 식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이를 회사에 제기하고 설득하여 식품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혼자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봉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서 시작했습니다.

공익옹호 관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보험 혜택이 부족하나 무료 또는 할인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아이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뉴욕 시의 모든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어떻게 농락을 당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악덕 지주들을 벌하고 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뉴욕 시의 예산 및 계약을 조사하여 지출 낭비 및 정부의 부실 관리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시는 저의 가족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뉴욕은 돈도 연줄도 없는 평범한 아이가 안내인이나 수위 직을 찾아 대학을 진학했던 그곳입니다.

지금 전 아버지이기 때문에 뉴욕 시는 제 가족을 부양하는 곳이며 교사인 제 여동생과 교정관인 제 처남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퀵스에서 자라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탁상공론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뉴욕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캠페인에 참여해주십시오.

EricGioia.com, 페이스(Facebook) 북 또는  
트위터(Twitter)에 접속하여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 \* \* \* \*